

Jilin 폭발사고로 벤젠 오염 극심

식수원 Songhua River 오염 심화 ... Harbin 단수 지속 공황상태

중국 Jilin Petrochemical의 11월13일 폭발사고로 Songhua River의 벤젠(Benzene) 오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Platt's에 따르면, 폭발사고로 인한 벤젠 유출로 11월24일 현재 Songhua River의 벤젠 오염띠는 80km에 달하며 인근 Heilongjiang, Harbin의 단수 사태가 2일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으로 유명한 Harbin은 동북 3성 최대 도시로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해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중단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PetroChina의 자회사 Jilin은 벤젠 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Jilin 컴플렉스의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ilin 컴플렉스의 생산능력은 에틸렌(Ethylene) 100만톤, 벤젠 10만톤, SM(Styrene Monomer) 14만톤, 페놀(Phenol) 12만톤, 아세톤(Acetone) 3만6000톤 등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1/25>